

GRACE 선교소식

2026년 3월 GMI-GKC 선교사 현황: 56개국 298명 (자체파송 79%)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저는 베트남에서 아시아 선교대회 일정을 마친 후 계속되는 사역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교회와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주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GTD 211기(남자) 팀멤버 모임을 인도하며 120명의 팀 멤버로 헌신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는 교회 교역자 팀장 모임과 교역자 직원 전체 예배를 드렸고, 저녁에는 그룹장과 그룹 담당 목사님들 모임을 통해 말씀을 나누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과 한 달의 중요한 사역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은혜평생대학 봄학기 개강 예배를 영상으로 설교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매우 감사한 일은 그레이스 미션대학, 미주장신, 월드미션, 국제신학대학 네 개 신학교가 연합하여 준비한 프로젝트가 릴리 재단(Lily Foundation)으로부터 1,000만 불 그랜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학교 총장님들과 교수,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감사예배를 드렸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전체 책임을 맡은 대학교 이사장으로 설교하고 회의를 인도하였습니다. 미국 한인 신학교 역사상 처음 이루어지는 연합 사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네 신학교가 함께 연구하며 준비하는 사역으로, 신학계와 지역 교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부목자 세미나를 강의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성도님들의 사업체를 방문하고 환우들을 병원에서 심방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선교적 모델 교회 목회자 세미나: 3/16-3/18
- 미주연합 노회: 3/24-3/26
- 부목자 세미나 종강: 4/1
- MEGL 16기: 4/13-4/16
- 스웨덴 은혜교회 집회: 4/19-4/21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2026년 첫 번째 연합 그레이스 인카운터가 시작되어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캔디데이트가 123명입니다. 열심으로 참여하는 새가족들이기에 모두 은혜받고 귀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OO / 최OO 선교사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예비선제 타격이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방공호에 대피해서 계속 머물고 있고, 사이렌 소리와 아이언 돔 격추 소리("붐붐")가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국정을 핑계삼아 2월 19일 35여명의 메시아닉 청년들과 즐거운 목요모임을 가졌습니다. 평소 목요 청년 홈그룹에는 15명 정도가 참석하고 함께 예배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

습니다.

최근에는 "사샤"라는 자매가 새롭게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작년 부터 러시아 정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토라포션을 나누며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나누고 있고, 믿음의 친구들과의 교제를 늘 사모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믿지 않는 "마이클"이 저희 목요모임에 왔고, 하루밤을 함께 지내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예수님 얘기도 조금씩 했는데, 마음이 열려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세속적 유대인이지만, 본인은 구약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찬양도 곧잘하고, 토라포션 소그룹 나눔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했습니다.

기도제목

1. 저희 가정에게 허락하신 메시아닉 청년 친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미국과 1국들을 위해 지속적인 중보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김광석 / 이영미 선교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를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
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11장 28-30

세계 곳곳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내전, 전쟁, 트러블 속에서 별 탈 없을 줄 알았던 캄보디아가 태국과의 접경지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휴전에 합의 한지 한 달 남짓 되었습니다. 북서쪽으로 태국과 붙어 있어 생각보다 피해가 컸고, 많은 피난민과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접전이 없었던 중심부와 베트남 국경지역은 피해가 없었으나 캄보디아 전국의 한국 선교사들은 힘을 모아 피해를 입은 교회와 교인들 그리고 피난민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선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함께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쓰나오 은혜교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먼저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에도 우리의 시선을 주께 두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입과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어른 예배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직 새내기 지체들은 교회에 적응 중이지만 그중 믿음의 신자들은 기도하는 기쁨,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자 개인적 부흥을 맛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자 중에 세례인인 사역자 가족과 더불어 드디어 청년 중에 세례를 받은 두 명의 신자가 생겼습니다. 모두가 기쁨에 흥분된 시간이었습니다.

다. 하늘나라에선 큰 잔치가 있었을 듯 합니다. 그동안 신앙적으로 믿음이 부족하여 교회를 자주 빼먹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번에 청년 한 명이 이제 세례 받고 싶다고 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로 지금까지 주일도 잘 지키고 신앙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쓰나오 은혜교회의 첫 열매인 청년 젊으란이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걸 해보고 싶고 많은 걸 누리고 싶고 많은 걸 소유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20대인이라 물질의 어려움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몇 달 전에는 본인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와 값나가는 자동차와의 접촉 사고로 많은 물질을 물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순수한 믿음과 선교사인 우리에게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 친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 우리 쓰나오 은혜교회에 바라는 것은 적은 숫자지만 영적 깊이를 갖춰가는 시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일하실 줄 믿고 소망과 기대를 가져 봅니다. 교회의 더 넓은 번창과 복음의 역사하심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지금 라마단 기간에 들어 갔습니다. 2월 18일에 시작해서 거의 한 달 간의 기간을 갖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완전한 금식을 하게 되며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고 그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라마단의 핵심은 알라에 대한 순종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 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금식과 금욕, 자선 그리고 꾸란을 평소보다 많이 읽음으로 이 기간을 보냅니다. 이 기간에 대부분의 음식점은 정오 12시 이후에 문을 열거나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 보이는 손님은 이슬람 신자가 아니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금식이 해가 지

면 끝나기에 라마단 기간 중에는 밤이 더 활발합니다. 사람들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거나 레스토랑에서 가족들끼리 음식을 즐깁니다. 라마단 기간 중 거리는 한산합니다.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바이람(Bajram)이라는 명절을 즐기는데 기독교의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비자

2월 중순에 1년 연장 체류비자를 다시 받았습니다. 기간은 이번 연도 11월 26일이며 11월 초에 다시 비자 갱신을 해야 합니다.

날씨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태양을 보기가 거의 힘들었던 겨울이 드디어 끝나고 이번 주부터 또다시 작년처럼 땀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에는 벌써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은 아직도 추워서 귀가 시립습니다.



언어

어려운 언어이지만 그래도 늘 꾸준히 해서 그런지 나아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회화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지만 예전보다 분명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감옥

감옥을 지나가면서 늘 감옥사역을 감당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스니아어를 잘 구사해야 하는데 감옥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이병철 / 박미란 선교사

[킬레오 공동체]

보건소는 천장에 석고보드 씰링작업을 위해 각목으로 석고보드 거치대 작업을 마쳤습니다. 나무를 충분히 사서 작업장에 두고 작업을 하면서 혹시 도둑이 오면 어떻게할까 염려하여 야간 지킴이를 세웠는데도 작업 중 나무가 부족한 일이 생겨 다시 사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시골마을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해서 가져갔을거라 생각'하며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석고보드로 천정을 마무리 하고 바닥 미장과 타일을 깔고 페인트 작업과 전기 결선 작업이 남았습니다.

어린이 방과후 수업 및 도서관 건축

몇년 전부터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싶은 마음에 오랫동안 기도하며 영어 책을 모으고 스와힐리 책을 사서 교회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또 방과후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읽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중학교 2학년인데도 아직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성경을 읽어 잘 몰랐었는데, 혼자 서서 읽게하니 중 2 학생이 더듬거리면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새삼 더 깊이 깨닫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작년년부터



함께하는 동역자 싱글 여자 선교사님과 함께 도서관 건축을 놓고 기도하며 왔는데 마중물 재정이 들어와서 드디어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싱글맘 쉼터

작년 2월부터 머문 크리스(8개월) 엄마(줄파 18세)는 지난 달부터 싱글맘쉼터를 나와 그레이스 센터에서 싱글 선교사를 돕고 언어교습과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데 저희에게도 아이 엄마에게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변학교 돌아보기

•생리대 나눔사역

작년 12월 용인에 있는 한국 용인에 있는 엄마 모임 '맘또맘'의 후원을 받고 한학기가 시작하는 1월에 중학생들에게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적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매년 4번의 나눔을 하는데 항상 다른 곳에서 재정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교실 바닥 콘크리트 작업

현지 학교 교실은 깨어진 콘크리트로 높낮이가 달라 아이들이 교실에서 놀다가도 넘어지는 일이 빈번하고 뛰면서 깨어진 콘크리트 먼지와 흙먼지로 앞이 자욱해 학교를 지날 때마다 교실 바닥을 보면서 콘크리트 작업을 해주고 싶어 기도하는 중 탄자니아 아이들을 위한 헌금이 들어와 먼저 교실 한칸의 콘크리트를 완료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곧 다른 교실도 해 줄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에 지날 때마다 저를 부르고 인사하는 모습이 조금 미안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자며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킬레오 교회 사역]

크리스마스 후 교인들의 시기, 질투, 이간질로 인해 몇몇 성도가 교회를 떠나 새해 첫 달부터 교회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내와 교회 리더십 모두 함께 세 번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듣고 기도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간구하였으나 쉽게 풀리지 않았던 성도들이 거의 두달이 지나 이제 모두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난 후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 하게 되는 시간이어 더 감사하며 돌아 온 성도들에게 "돌아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고 설교 중 이야기했더니 온 성도가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기쁨의 2월이 되었습니다.

[킬리만자로 고등학교 사역]

집에서 오전 10시전에 출발하면 겨우 오후 1시에 도착해 3시까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집에 오면 6시가 넘어 하루를 온종일 학교에 올인하게 됩니다. 매주 수요일 아이들을 보는 기쁨에 비전을 심어주고 그 비전에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비전대로 살아가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 수요일이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저의 중,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을 찾았던 열정을 그들에게 보여주어 감사합니다. 그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가정사역]

해가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아프리카는 저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는 중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감기 몸살이 유행을 하더니 결국 새로 오신 싱글 선교사님의 시작된 몸살이 저도 옮겨 밤새 추워서 떨었던 저는 일주일이나 지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과 아내와 제가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비오기 전에는 저희 집의 실내 온도가 37°C(98°F)를 넘겨 정말 힘들었는데, 감사하게 그제 비가 오면서 뜨거움을 식히고 시원함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프레즈노 몽족

황인주 선교사

【함께 피어나는 사역의 봄꽃】

지금 이곳 프레즈노에는 2월임에도 불구하고 봄꽃들이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저희 몽족과 아시아 난민 사역은 멀리서, 혹은 가까운 곳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과 교회들이 계시기에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함께하는 사역이며,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눈물 흘리고 기뻐하며, 고난을 이겨낸 봄 들꽃들처럼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각 사역별 보고】

토요일 아웃리치 (어린이 및 청소년 사역)

매주 토요일 아웃리치를 통해 다시 한번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직접 픽업하여 찬양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세대인 자녀들 세대를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차량 교체 기도 요청

이 귀한 사역을 위해 그동안 발이 되어주었던 교회 밴 차량들이 수명을 다하고 있어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소한 5대의 밴 차량이 필요한데, 현재 2대가 운행을 멈추었고 2대만 정상 운행 중입니다. 7인 이상이 탑승할 수 있는 미니밴이나 SUV면 충분합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차량 도네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푸드 나눔 사역

매주 금요일 푸드 나눔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헌신자가 매주 2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일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2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푸드를 나눕니다.

토요일 한방 사역

토요일 한방 사역을 통해서 어른들이 주님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헌신해 주시는 한의사들의 노고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매주마다 한의사들이 봉사하실 수 있도록 (현재 두 분이 헌신 중)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쉬지 않고 이 귀한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구원의 역사와 비전】

저희 선교센터는 복음 전파라는 교회의 본래 목적을 굳건히 붙들고 프레즈노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는 교회의 현실 속에서, 저희 사역은 어린이와 청소년



들이 교회로 많이 오고 있다는 소망의 증거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자도, 많이 배운 자도,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들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은 뜨겁습니다. 매 주일 예배 후에는 몽족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라오어 등 5개국어로 성경공부 모임을 뜨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글을 모르는 분들이라도 함께하며, 기쁨으로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헌신을 그리고 준비됨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두 번째 몽족교회 개척을 위해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개 몽족교회 개척과 12명의 선교사 파송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할 지라도, 저희는 주님이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바울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2월에 주신 열매】

- 유아세례 1명, 학생세례 3명, 어른 세례 2명에게 베풀었습니다.
- 2월 한 달 동안 7명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M국

곽OO / 엄OO 선교사

그룹리더 양육시간

M국 청년들이 당장의 결과물로 보이기 식이 아닌 평생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깊은 신앙을 향해 서서히 성숙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된 개척 선교지

대학생들이 성경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20대가 되어 기독교를 처음 접하게 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더자로 양육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교육받는 내용으로 주일 오후 모임시간에 자신의 그룹 멤버들을 양육합니다.



태국

김경수 / 서경란 선교사

라농까퍼교회

라농 까퍼교회를 현지 사역자에게 위임을 하였습니다. 사역자 아잔 뽀의 위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와 기도로 은혜스럽게 예식을 진행하였으며 사역에 성령님께서 기름부어주시어 향후 이 지역을 복음화 시키는데 귀하게 교회가 사용되어지며 사역자를 사용하시기를 모두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더욱더 교회가 안정되어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로 소망합니다. 또한 까퍼교회는 올해 이제 전도교회에서 자립교회로의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목적이 선교와 전도임을 알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말세지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보루가 될 수 있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전도가 생활화되며 교회학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다음세대의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 한해에는 교회내 여성들의 리더십이 개발되어지며 여성들이 기독교 여성에 적합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도심으로 나간 청년들과의 네트워크 사역에도 지경이 넓어지며 인프라가 구축되며 일꾼들이 연결되어 동역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주세요.



전도와 선교 - 오이코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다시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남부 라농 지역은 불교와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한 곳으로, 교육·의료·복지 전반이 불교 시스템 안에

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님들의 세계관도 불교적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며 전도했지만,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고 지속적인 만남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기도모임에 오기로 했던 쿤빠떼우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신 카페 주인 쿤폰을 통해 세 명의 지인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체감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6 기독교 여성 리트릿

3월에는 라농주를 떠나 인근 촌폰주에서 여성 리트릿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모임은 여러 지역의 기독교 여성들이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비록 소수의 기독교 여성들이지만, 믿음 안에서 서로 힘과 위로를 나누며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주의 여성 제자로서의 삶을 다짐합니다.

이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앞으로도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독교 여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농 여성 모임과 촌폰 리트릿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배우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기를 다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농 임마누엘 카렌교회

라농 임마누엘 카렌교회 사역자가 온후 교회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와가족이 믿음의 가족으로 잘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민의 환경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세계 굶지 않고 먹게 하시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죽음 앞에 겸손하게 하십니다. 이땅에서는 부와 가난으로 나뉘고 여러 모양으로 나뉘고 구분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나라 성도들로서 이 땅에서는 일시적이고 나그네적인 삶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천국소망을 품고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나라의 귀한 동역자(아론과 훌)

태국은 선교하기가 힘든 영적 토양을 가진 나라입니다. 특별히 태국 전 지역 중에서 남부는 불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이슬람은 공동체를 이루며 자녀들을 많이 낳으며 자연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쿤램과 쿤땡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적인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입니다. 이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살아가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도록 중보로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교단과 노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최우선으로 함께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시골지역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가진 자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보다 하나님 나라의 칭찬을 받을 존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믿음의 가문과 가정과 자녀들이 이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순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어 형통하고 순적하며 열매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전파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특히 쿤 램 가족은 믿음의 가정으로 많은 자녀들을 두며 믿음의 가문으로 성장 가운데 있으며 태국 내에서 대다수 불교와 이슬람을 믿는 가운데 불과 0.5%의 기독교인으로 태국사회에서는 소수이지만 일당백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육신을 쳐서 성령에 복종시켜야 하는 이유

<1분단상 150-3월호>
- 김대규 장로

사도바울은 왜 자신을 곤고한 자라고 했을까? 그의 내면에 있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와 죄를 쫓으려는 육신과의 충돌에서 비롯된 절규인 것이다(롬7:24). 이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갈등이며, 모두가 매일 자신과 마주하는 영적인 전쟁을 의미한다. 이 갈등의 실마리를 우리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진실함을 보시고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이다. 이로 인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성령께서는 내주하시게 된다(요3:5,6). 이 때 구원은 영적, 혼적,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며, 통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적인 구원은 성령의 인침을 받아 즉시 이루어지지만(엡1:13), 혼적인 구원은 믿음과 순종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벧전1:9), 육신의 구원은 장차 완성될 미래의 것(빌3:21, 고전1:51,52)이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닮은 삶을 추구게 된다. 그러나 혼과 육은 이 세상에서 얻은 지식, 의지, 감정, 습관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것보다는 눈에 익숙한 세상의 것을 쫓게 된다. 이로 인해 영과 혼과 육이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점차 세속적인 욕망을 제어하며, 말씀을 통해 정화되어 영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간다. 이것이 바로 혼이 영을 닮아가는 점진적 구원이다. 한편 몸은 여전히 세상과 접촉하며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육신을 쳐 성령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다.

혼이 변화되면 육을 절제하고 근신하게 만들어 가는데 이것이 성화과정이다. 이 성화의 여정을 통해 영과 육의 갈등이 해소하게 되므로 우리는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한다. 이것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말씀의 실현인 것이다(롬8:1-11).

그러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육이 성령에 복종되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갈 수 있는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쉽게 찾아 낼 수 있다. 첫째 영의 영향을 받는 혼이 육신에 대한 욕구를 절제하며, 얼마나 영적 가치의 삶을 사느냐이다. 둘째는 혼이 육신의 욕망과 습관을 끊어내는 결단과 그에 따른 끈질긴 지속성을 갖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테면 영적으로 산다면 하루를 지낼 때 세상에 빠지고, TV나 오락, 소셜 미디어, 소비문화, 인간관계, 재정에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어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한다면 영과 육의 충돌은 피할 수 없고 갈등만 고조될 것이다. 이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육신을 성령께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다.

성령에 복종하는 삶의 실제적 모습은 기도와 예배적 삶,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이다.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구체적 방법은 말씀 묵상과 금식, 경건의 훈련 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여 회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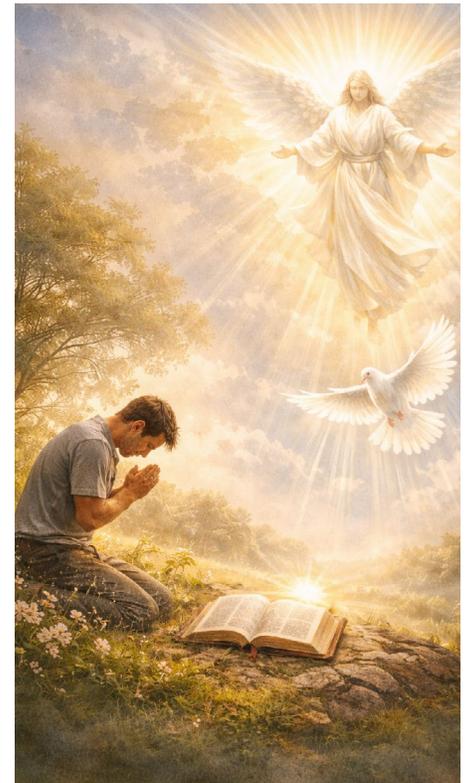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육신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하며,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길이기 때문이다(갈5:16).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가 새롭게 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번 새로워진 것으로 끝나서

는 아니 된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때문에 매일 우리 자신을 새롭게 되게 해야 한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매일의 삶이 새롭게(엡4:23:아나네우 스타이, ἀναυεουσθα:날마다 계속 세로워져야 함) 될 때 우리는 거룩과 자비, 겸손과 온유, 관용과 화평, 오래 참음의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 위에 사랑을 더하여 모든 것을 하나로 매는 띠가 되게 해야 한다(골3:12-17).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승리의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육신을 쳐서 성령에 복종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일본 송좌한 / 김정희 선교사

1. 새벽예배 말씀과 기도예 큰 은혜를 주시길
2. 가정에 늘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길
3. 아내의 건강을 지켜 주시도록(감기, 허리)
4. 찬양인도를 통해 주의 성령으로 하나되게
5. 2/23-3/13 GMS선교사훈련 잘 받도록
6. 예비하신 주파송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7. 일본어를 잘 배우고 지경이 넓어지도록
8. 중고청 연합예배, 청년수련회(3/22-23)
9. 노방전도 사역을 잘 준비시켜 주시길



캄보디아 김광석 / 이영미 선교사

쓰나오 은혜교회를 위해

1. 쓰나오 은혜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와 복음전파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2.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속 사람이 변화하여 믿음 안에 자라도록
3. 사역자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4. 껌오란이 직장을 잃어 많이 상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동안 사고로 인하여 생긴 빚도 잘 갚을 수 있도록. 건강과 신앙에 있어서 주님안에서 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5.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6. 오르난의 타작 마당처럼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시도록
7. 새로운 마을에서 전도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전도하는 과정과 마을 사람들 과의 소통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속히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선교사를 위하여

1.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몸도 건강할 수 있도록
2.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시대를 분별하고 강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3. 주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4. 필요한 생활비와 사역비가 넉넉히 채워지도록
5. 세 자녀 드보라 다니엘 샤론이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태국 김경수 / 서경란 선교사

1. 라농까퍼교회가 안정되게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2. 라농에서의 전도와 선교사역에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소서. 이곳에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만나게 하소서.
3. 까퍼교인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영적 지도자의 삶이 되도록 그들의 믿음과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소서
4. 라농지역에 모든 영적 영역에 지경이 확대되고 넓어지며 동역자와 협력자들이 많아지며 하나님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인도하소서
5. 라농 성도들이 (뎡, 램, 모, 폰, 다우) 영적 훈련들을 계속해서 받으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무장을 해나가며 영적 전투를 승리해 나가게 하소서
6. 도심으로 나간 청년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게 하소서 이를 위해 돕는 자와 영적 물적 환경이 조성되게 하소서. 향후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영적인 일꾼으로 모된 교회 섬기게 하소서
7. 라농 임마누엘 미안마카렌교회가 영적지도자들(더와, 존, 영사투, 수나이, 말라코, 솜펫)로 인해 이주민 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의 삶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이병철 / 박미란 선교사

1. 킬레오 그레이스 교회 교인들이 감사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성도들이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 보건소 건축과 어린이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의 재정이 채워지고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1) 킬리만자로 고등학교 아이들의 진학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 특히 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주시요.
3) 7월에 있을 세미나를 통해 기드온의 300용사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4. 저와 아내 그리고 동역하시는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시요.



프레즈노 몽족 황인주 선교사

1. 두 번째 몽족교회 개척 예배를 위해서
2. 아이들 픽업 차량 교체와 전체 5대 확보를 위해서
3. 주일에 5개 언어 성경공부와 각 언어별 직분자 임명을 위해서
4. 토요일 아웃리치 봉사자들과 한의사 봉사자를 위해서
5. 선교센터 주차장 차양막공사와 예산 확보를 위해서
6. 황선교사 가정의 건강과 재정을 위해서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1.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의 임대를 위하여
2. 보스니아 언어 습득을 위해
3. 감옥 사역의 문이 열리도록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튀르키예 이란 난민 인카운터 2기 (3/12-3/17)
S/L: 변재령 목사
디렉터: 김태형 집사
문의: 김규현 집사 (714-502-4399)
- 네팔 코이노니아 인카운터(3/27-4/4)
S/L: 권상욱 목사
리더(문의): 조 제이슨 피택장로 (213-905-0636)
총무: 최성욱
- 시베리아 티디 22기 (4/6-4/9)
S/L: 한성우 선교사
문의: 박혜숙 전도사 (714-388-2896)
- 니카라과 인카운터 1기 (4/6-4/12)
디렉터: 추금환 집사
문의: 문기훈 목사 (714-351-7212)
TM: 3/9(월), 205B, 7PM

- MEGL #16 Türkiye (4/14-4/17)
S/L: 한기홍 목사
문의: 안성민 집사 (703-593-5949)
- 파라과이 상담국 선교 (4/21-4/24)
S/L: 김영호, 김정원 목사
렉터: 김준규 장로 (714-336-8320)
- Armenia ARTD #19 (4/19-4/28)
S/L: 백승환 선교사
렉터: 임경무 집사
총무: 성재승 집사
- 인도네시아 인카운터 1기 & 개척선교 (4/23-5/3)
S/L: 설성훈 목사
문의: 이병훈 집사 (714-353-1208)
T/M: 2/4(수) 108, 7PM
- 케냐 인카운터 1기 (6/21-7/4)
S/L: 설성훈 목사
문의: 로이김 집사 (213-999-1737)

2.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3.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4.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5.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